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다.

The way to blow windmill
without wind
is to run toward.

- 데일 카네기(Dale Carnegie) -

GAMEVIL COM2US NEWS

GAMEVIL[®] COM2US

VOL.169

2021.06

Cover Story, The boy! from a happy life, 영상제작팀 '정용훈' 사우
Game Focus, 도트 그래픽에 휩스크롤이면 킹정이지! 레트로 감성 2D RPG '로얄'
Game Focus,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7주년, 유쾌함을 맞이하라!
Marketing Story, 야구 시즌을 함께 할 '컴프야2021'의 특별한 마케팅 이야기!
Special, '컴투스KOREA 3X3 프리미어리그 2021' 개막
게임vs게임, 2021 여름, 등골이 오싹해지는 온라인 PvP 공포게임
고전탐독, 그 시절 '벨트스크롤' 대탐험 2탄
맛세상, 먹고 마시고 걷는, 수원의 명소 '행궁동'



게임빌컴투스뉴스

GAMEVIL-COM2US MONTHLY MAGAZINE / WWW.GAMEVIL.COM WWW.COM2US.COM



Slime
WILD IMPACT
Hunter



서머너즈워
백년수전쟁

2021★06

Global Mobile Game Leader 'GAMEVIL-COM2US'

게임빌·컴투스 는 국내 모바일게임 산업을 초창기부터 이끌어 온 게임사입니다. 우수한 개발력과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글로벌 모바일게임 리더로 도약했습니다.

양사는 '손 안의 즐거움'을 모토로 모바일게임 산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놈', '붕어빵타이쿤', '게임빌프로야구', '미니게임천국' 등 엄지족들을 열광 시킨 히트 브랜드는 물론 '서머너즈 워', '별이되어라!', '컴투스프로야구', '크리티카: 천상의 기사단', '낙시의 신', 'MLB 퍼펙트 이닝'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력 돋보이는 스테디셀러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게임빌·컴투스는 세계인들이 즐기고 공감하는 게임문화를 조성해 '게임의 가치'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양사는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중국, 태국 등 10여 개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독자적인 모바일 통합 플랫폼 '하이브'에 기반한 방대한 유저 풀을 축적하여 게임으로 하나되는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게임빌컴투스뉴스"에서는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게임빌·컴투스의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폰 안에서 펼쳐지는 행복한 게임 세상! 즐거운 게임 라이프를 출발합니다.

'GAMEVIL COM2US NEWS' 2021년 7월호에는 더욱 다양한 독자 분들의 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접속해 주세요.

[www. gamevilcom2us.com / gcnews](http://www.gamevilcom2us.com/gcnews)



CONTENTS



★ INSIDE GC

08 Cover Story

The boy! from a happy life
컴투스 영상제작팀 '정용훈' 사우

23 Special

'컴투스KOREA 3X3 프리미어리그 2021' 개막
"3대3농구 시즌이 돌아왔다"

26 Special

컴투스, 웹툰 사업 본격 진출한다!
콘텐츠 제작사 '정글스튜디오' 설립

32 Special

게임빌·컴투스와 함께하는 '고!고! 챌린지'



★ GC GAME

12 Game Focus

도트 그래픽에 횡스크롤이면 Kingofthe!
레트로 점성 2D RPG '로얄'

14 Game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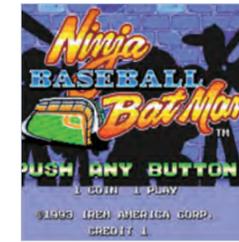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7주년,
유쾌함을 맞이하라!

16 Game Focus

캠린이의 사진,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20 Marketing Story

야구 시즌을 함께 할 컴프야2021의
특별한 마케팅 이야기!



★ GAME

24 Special

The New! 21세기에 다시 태어난,
CRT 브라운관의 게임들

27 게임vs게임

2021 여름, 등골이 오싹해지는
온라인 PvP 공포게임

30 고전탐독

그시절, 문방구 앞 게임
'벨트스크롤' 대담형 2탄!



★ CULTURE

22 Special

5년만의 화려한 귀환,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

33 퇴근후에

마음이 나날거리는 퇴근 후 충전 비급
<나빌레라> & <중세를 찍자!>

36 맛세상

먹고 마시고 걷는,
수원의 명소 '행궁동'

38 Monthly Item

홈파밍 수경재배키트
'ECOGROW'



★ FUN

42 달콤한 인생

사내공모전: '가정의 달' 편

44 복면검왕

45 게임백과사전

추억의 '테일즈위버' 편

49 WE WIT

55 Quiz

GC상식 퀴즈

발행인 송병준
편집인 유연상
기획·편집 게임빌컴투스뉴스 편집부
디자인 박선영
표지 사진 고대은

기자 게임빌, 컴투스, 게임빌컴투스플랫폼 임직원, 그리고 독자 여러분
게임빌컴투스뉴스 2021년 6월호 / 통권 제169호(Since 2001. 11.)
발행일 발행일 2021년 6월 1일 / 2001년 11월 창간호 발행(월간, 비매출)
발행처 게임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A동
정보간행물 신고 일자 2018. 7. 5. 신고 번호 금천, 라00216

The boy! from a happy life



영상제작팀 정용훈 사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투스 영상제작팀 정용훈입니다. 평소에 식당에서 나오는 사
보 영상을 흥미롭게 봤는데 이렇게 직접 표지 모델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표지 모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평소에도 촬영을 좋아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 평소에 사진 찍는 것과 촬영하는
것을 좋아하고 관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표지 모델분들의 사진이 너무 좋
아서 저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마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마치고 난 뒤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촬영 전날에 동생이 의상 준비하는 것을 도와줘서 수월하게 준비 했습니
다. 그리고 촬영장에도 같이 와줘서 나름 편하게 촬영을 마친 것 같습니다.
아마 동생이 없었다면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 포즈 잡고 표정 짓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모델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촬영 콘셉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콘셉트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피리 부는 소년' 콘셉트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화 패러디로 사
진을 찍으면 어떨까 생각 했는데 마침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그림이 떠오

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윈드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
넷을 불었습니다. 이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 드럼, 기타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우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클라리넷을 꺼내 본 적이 없었
는데 오랜만에 만져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본업은 영등이의 꾸준함(?)이 요구되는데, 반대로 상당히 액티브한 서핑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요?
예전에 발리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서
방향하다가 해변에서 서핑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 나도 저걸 해봐야겠다'
하고 도전해 봤습니다. 정말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스케이트보드나 스노보
드와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름휴가는 항상 서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최
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잠잠해지면 또 서
핑을 하러 가고 싶네요.

영화도 무척이나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꼭 봐야 할 추천 영화와 주인공
처럼 살고 싶은 영화가 있나요?
제가 영화를 정말 엄청나게 좋아해요. '일주일에 영화 한 편씩 보기'를 대학
생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정말 많지만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미국 음악의 중심지인 애틀랜타를 배경으로 신나는 음악과 함께 주인공 '베이비'의 시원한 드라이빙 액션을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오프닝 시퀀스부터 몰입감 있는 장면을 시작으로 전개도 빠르고, 나오는 캐릭터들의 설정도 각각 색이어서 보는 내내 눈이 즐거웠던 영화예요. 아마도 기존의 액션 영화와는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도 추천합니다. 소심한 성격의 주인공 '월터'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다양한 도전을 하는 힐링 영화인데요. 저도 능동적이며 다양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인터뷰하다 보니 상당히 긍정적이고 해피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자신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특별히 만족도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한 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학교 졸업 후에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항상 즐겁게 일해 왔어요. 특히 컴투스에 입사하고 나서는 워라벨이 좋아져서 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 만족도도 높고요.

어느덧 2021년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하반기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현재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상 제작에 있어 게임엔진이 많이 사용될 것이라는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게임 엔진을 공부해서 실무에 사용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입사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입사 초기에 미국에 출장 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까지 3명이 출장을 갔었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촬영을 마쳤어요. 삼각대에 카메라를 들고 힘들게 촬영하다가 잠시 시간을 내서 점심으로 피자를 먹었는데, 한 분이 저에게 입가 왼쪽에 피자 기름이 흐른다고 말해주시면서 엄청 웃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말씀을 하시는 본인의 입가 양쪽에 피자 기름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다들 힘든 와중에 정말 웃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끝으로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표지 모델 촬영을 하면서 관계자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사우분이 사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건강 조심하세요!

글. 정민지 기자 / popcornr22@





도트 그래픽에 횡스크롤이면 킹정이지!

레트로 감성 2D RPG '로엠'

'로엠'은 탄탄한 스토리와 아기자기한 그래픽, 편리한 캐릭터 성장, 빠른 스토리 전개, 깊이 있는 콘텐츠로 가볍지만 독특한 게임을 원하는 유저들에게 특별한 게임 경험을 선사한다. 2019년 출시 초기, 이러한 유저들의 니즈를 자극하며 앱스토어 매출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출시 후 2년이 지난 5월 11일, 글로벌 퍼블리셔 게임빌과 함께 세계와 만났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인을 매료시킬 '로엠'만의 매력을 알아보자.



★ 로엠의 귀여운 캐릭터 일러스트들

'로엠'이 즐거운 첫 번째 이유 플레이가 편한 캐주얼 RPG

'로엠'을 처음 접하고 언뜻 특정 게임이 떠올랐다. 아기자기한 감성의 귀여운 도트 그래픽과 스토리, 하지만 그 게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로엠'은 플레이가 편한 게임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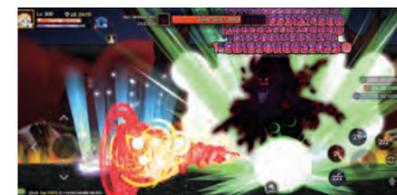
◆ 주문서로 순간 이동! GM 급 이동 능력

먼 거리를 이동할 땐 주문서를 이용해 원하는 맵으로 단번에 이동할 수 있다. 주문서 역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며, 맵 내 이동은 약간의 MP를 소모하여 순간 이동까지 할 수 있으니 여타 게임 GM 급 이동 능력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미친 타격감의 사냥 시스템

사냥 역시 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공격 스킬이 대부분 광역 스킬이다. 좁은 맵에서는 스킬 한방에 모든 적이 쏠려 나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피버로 몬스터 잔속도를 올릴 수 있으니 무쌍 게임이라 해도 손색 없을 사냥이 시작된다.

스킬은 범위만 넓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마법사가 쓰는 메테오의 경우 여러 적이 있을 때는 광역 스킬, 단일 적이 있을 때는 단일 단단 스킬로 변환한다. 이 때문에 조작이 편하면서도 강한 타격감의 사냥을 즐길 수 있다.



★ 실은 오프닝 전투임

◆ AI와 함께하는 파티 시스템

혼자서 사냥하기 어려운 사냥터에서는 곳곳에 AI가 배치되어 있어 쉽게 파티를 형성할 수 있다. AI 역시 뛰어난 무리 없이 파티 사냥을 즐길 수 있는 점도 '로엠'만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아기자기한 도트 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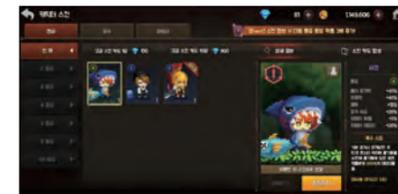
몬스터 하나하나가 세심한 도트 장인의 손길이 닿아 한 땀 한 땀 제작된 것이 느껴지고, 디자인 역시 귀여움이 느껴진다.

캐릭터 스킨 또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특히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의 파란 댕댕이는 카

카오투이나 라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로 '로엠'에서도 높은 퀄리티로 잘 구현되어 앞으로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이 기대된다.



★ 파란댕댕이 귀가 흔들려 귀여움



★ 스킨은 뽀키와 합성이 존재

세 번째, 꾸준히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

'로엠'에는 필드 사냥 외에도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다. 다양한 사냥터를 탐험하며 원하는 보상에 따라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 다양한 사냥터

'던전'에서는 몬스터와 보스를 사냥하고 모은 마일리지로 각종 제작서를 구입할 수 있다. '한계의 탑'에서는 매 층 정해진 몬스터를 사냥하고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있으며, '몬스터 야드'에서는 매일 특정 시간 빠른 리젠과 높은 경험치 보너스 및 드랍률이 적용되는 사냥터를 제공하고 보상으로 완제 장비를 얻을 수 있다.



★ 기억에 남은 에블레와 메뚜기

◆ 자유도 높은 '아이템 제작 시스템'

'로엠'에서는 플레이를 통해 얻은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해 강력한 효과를 가진 아이템들을 DIY할 수 있다. 장비 고유의 콘셉트를 기본으로, 유저의 사용 용도에 맞게 업그레이드하여 다채로운 사냥과 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로엠'만의 매력적인 시스템이다. 이 제작 시

템을 십분 활용하면 팀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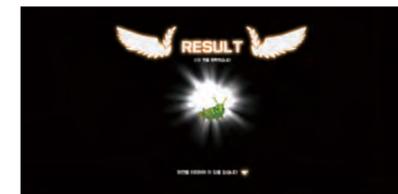


★ 아이템 제작 시스템

◆ 몬스터 도감 및 핏 시스템

'로엠'은 레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몬스터 도감을 채우는 것으로도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몬스터를 사냥하다 보면 그 몬스터가 핏으로 등장하여 포획을 시도할 수 있다. 핏은 종류에 따라 고유 능력치가 있으니 다양한 핏을 잡고 원하는 대로 육성시켜보자.

또한 3가지 스타팅 직업과 4차 전직에서 나누는 2종 직업으로 인해 총 6종의 직업이 있으며 여러 캐릭터를 키우는 시너지가 존재하고 캐릭터 슬롯도 6칸을 지원하니 모두 다 키워보자.



★ 핏 획득 그러나 메뚜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로엠'

'로엠'은 1인 개발로 시작한 인디게임이다. 하지만 지금 게임빌과 글로벌 출시를 하며 점차 업데이트 속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로엠'에서 밝힌 업데이트 계획은 '경쟁형 길드 콘텐츠', 공략 요소가 있는 '진: 보스 레이드' 그리고 'PvP 콘텐츠'다. 하나같이 굵직 굵직한 콘텐츠인데 향후 로엠의 방향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하게 성장하고 있던 '로엠'이 글로벌 출시와 함께 더욱 성장해 나간다고 하니 지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7주년

유쾌함을 맞이하라!

2014년에 탄생을 알린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가 어느덧 출시 7주년을 맞았다. 얼마 전에는 유저들이 축하의 의미를 담아 이색적인 생일 케이크를 보내오기도 해서 개발진에게 폭풍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번호에서는 오랫동안 글로벌 유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서머너즈 워'가 최근 유저들에게 선보인 유쾌하고도 신박한 콘텐츠를 소개해 본다.

★ 장기 흥행 게임의 저력, 눈부신 역주행

'서머너즈 워'는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글로벌 장기 흥행 게임의 역대급 저력을 증명하고 있다. 우선 유럽에서는 출시 7주년 당일 역대 최고 동점(동시접속자수)을 기록했다. 이날 최고 동점은 지난해 보다 29% 이상 상승한 수치다. 또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걸쳐 신규 및 복귀 유저수가 증가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일본·중국·아시아·글로벌 등 여러 서버의 최고 동점도 평균 1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도 역대급이다. 5월 14일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 등 6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매출 1위를 달성하고 28개 국가에서 애플 10위권의 순위를 기록하는 등 업데이트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일매출 기록을 과시하며 7주년 장기 흥행작의 고밀도 화력을 선보이고 있다.

★ 신규 업데이트,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기자!

우선 '서머너즈 워'의 업데이트부터 만나보자. '서머너즈 워'는 최근 신규 및 복귀 유저들도 쉽고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전투 훈련장'과 '신규 2차 각성 몬스터'를 업데이트했다.

'전투 훈련장'은 유저들이 게임 속 몬스터를 활용해 여러 전투 플레이를 경험하고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한 신규 모의 전투 콘텐츠다. 전투 훈련장은 특별한 차원의 공간에서 정해진 몬스터를 활용해 상대 몬스터와 겨룰 수 있는데, 주어진 몬스터만으로 전투를 진행해 아군 몬스터의 스킬 및 활용법 등을 익히고, 적재적소에 전략 전술을 펼치는 수동 플레이어의 재미도 경험할 수 있다.

해당 콘텐츠는 소환사 레벨 21 이상이면 건설할 수 있으며, 이미 클리어한 전투 스테이지도 여러 번 반복해서 플레이 할 수 있다. 최근 대폭 늘어난 신규 및 복귀 유저들이 전투 훈련장을 통해 플레이 방식을 연습하고, 더 쉽고 재미있게 '서머너즈 워' 전투를 즐겨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2차 각성 몬스터'도 흥미롭다. '서머너즈 워'는 신규 2차 각성 몬스터 '하이 엘리멘탈'을 추가하고, PvE 전투 시스템 차원홀의 엘루니아 유적에 2차 각성 던전을 추가했다. 던전을 통해 경험치를 쌓고 자신이 보유한 태생 3성 하이엘리멘탈을 2차 각성시키면, 해당 몬스터를 화려한 외형과 한층 강력해진 스킬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 7주년 기념, 유쾌한 영상 시리즈

게임 광고 영상이 늘 멋지고 아름다운 콘셉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머너즈 워' 7주년을 맞아 만들어진 이번 영상들은 기존 관념을 뒤집는 참신한 감각과 B급 감성의 광고로 유명한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했다. 최근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부상하는 배우 김주현이 세계 최정상 고수들의 자존심을 건 월드컵 아레나에서 한국 대표 소환사가 되어 열연을 펼쳤다.

■ 1탄!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결의를 다지는 한국 소환사의 내레이션과 함께 시작하는 영상은, 공격을 앞둔 상대 소환사의 강력한 모습을 대비시키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어 개 형상을 한 위협적인 비주얼의 몬스터가 소환되자, 한국 소환사는 '이 순간을 위해 7년을 기다렸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주문과 함께 자신의 몬스터를 소환한다. 이때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등장하며 강렬한 눈빛과 말 한마디로 간단히 상대를 제압하는 역전 플레이를 펼치는 모습이 유저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 2탄! '노래하라! 죽음을 부르는 주문을'

외국 소환사의 강력한 몬스터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의 소환사가 결의에 찬 죽음의 주문을 외우며 영상이 시작된다. 진중한 분위기 속에 흑마법사 분장을 한 유병재가 소환되는 찰나, 밥 먹으라는 게임 밖의 어머니 부름에 소환사의 플레이가 일시 정지되고, 마법 소환진에 낀 유병재의 당황스러운 순간을 워트 넘치게 표현했다. 해당 영상들은 각각 유튜브 조회 수 400만 건, 250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 올해도 야심 차게 준비한 'SWC2021'

지난해 첫 온라인 대회 진행을 통해 쌓은 성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올해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2021(SWC2021)' 또한 관객과 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 경기를 무관중 온라인 방식으로 치른다. 더욱이 올해는 선수들이 더욱 더 정교한 실력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예선 최종 진출자 결정전부터 지역전, 월드결선 전 경기에 5판 3선승제를 도입, 월드 챔피언을 향한 더욱 치열한 진검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다.

대회는 7월 말 예정된 예선전을 시작으로 11월 월드 파이널까지 약 4개월간의 대장정이 펼쳐진다. 선수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중 진행되며, 참가 신청자 중 월드컵 아레나 시즌 16과 현재 진행 중인 시즌 17의 성적을 기준으로 예선 참가자가 선발될 예정이다 또 어떤 숨은 고수 유저들이 즐거운 승부들을 펼칠지 기대가 된다.

후세에도 여전한 사랑을 받는 것을 우리는 클래식이라고 부른다. 7주년을 넘어 여전히 건재함을 자랑하며 글로벌 유저들의 사랑을 받는 '서머너즈 워'가 먼 미래에도 고유의 클래식함을 자랑하는 현역이길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 '서머너즈 워' 신규 업데이트



★ '서머너즈 워' 출시 7주년 영상 썸네일



★ '서머너즈 워' 7주년 기념 영상 2탄 썸네일



★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2021



겜린이의 시선,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컴투스의 실시간 전략 대전 게임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이하 '백년전쟁')'이 출시 첫날 다운로드 수 100만을 넘어선데 이어, 열흘 만에 300만을 돌파했다. 최근 투기장 업데이트로 더욱더 흥미진진한 승부를 선보이는 '백년전쟁'을 겜린이의 시선으로 가이드 한다.

★ 다양한 조합을 만들자

기자가 플레이해 본 '백년전쟁'은 플레이할수록 덱에 전설 등급 카드들을 육여넣는 것이 정답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게임이다. 사용할 수 있는 마나 코스트의 한정성으로 인해 지나치게 고비용 몬스터들로만 덱을 구성하면 낮은 코스트 몬스터들로 꾸린 덱에 탈리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성향에 맞는 타입으로 덱을 구성하되, 현재 가지고 있는 몬스터들의 레벨을 고려해 여러 가지 덱을 만들어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아몬드 등급까지 열심히 등급을 올려보니 보통 전열에는 체력과 방어력이 높은 몬스터들(잔느, 쿤, 라마고스, 라칸 등)로 구성하고 후열에는 단일 딜러형 몬스터나 전체 공격형 몬스터(케메뉴, 라피스, 피닉스, 소피아, 랙돌 등)를 넣는 구성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핵심은 유저가 어떤 몬스터를 주력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다른 유저들의 플레이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명예의 전당 경기를 유심히 보고 덱 구성이나 스펠, 몬스터 스킬 사용 순서 등을 참고하면 승률을 올릴 수 있다. 아 참, 승부를 예측하는 응원 콘텐츠도 있으니 매의 눈으로 판단하여 쓸쓸한 보상을 얻자.

★ 전 세계와 '짤'으로 겨뤄보자

'백년전쟁'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전 세계 유저들과 겨룬다는 것이다. 등급전, 결계전, 투기장에서 다양한 조건에 따라 북미, 유럽, 아시아 등 다채로운 국적의 유저들과 맞붙게 된다.

일반적으로 '등급전'에는 룬과 몬스터 레벨, 그리고 스킬석이 적용되기 때문에 몬스터들의 능력치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자동차 레이싱을 할 때 드라이버가 아무리 훌륭해도 차의 성능 차이가 심하면 경기 결과를 뒤집기가 다소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투기장'에서는 최대한 동일한 조건의 상대와 겨룰 수 있다. 최대 10승까지 달성할 수 있는 투기장 모드는 최대한 동일한 조건에서 유저들이 진검 승부를 펼치는 겨룸의 장이 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유저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실력에 따라 상당히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님아, 그 카운터를 치지 마오

등급전과 결계전을 비롯한 실시간 대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일 때가 있다. 상대방의 스킬이나 스펠에 너무나 민첩하게 반응한 나머지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 상대방이 스텐이나 감속, 지속피해 등의 스킬을 사용할 때 영혼 정화 스펠이나 전이 스펠, 혹은 디버프 해제 효과를 지닌 몬스터의 스킬이 더 먼저 작동해 버릴 때면 '아차!' 싶은 생각이 든다. 물론 우사였다면 아주 나이스 한 선택이 되겠지만 말이다.

반사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이려 하면 한 번쯤은 참고 기억하자. '모든 카운터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 이 보 전진을 위한 일 보 후퇴

기본적으로 몬스터의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카드를 모아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몬스터 특색에 알맞은 룬을 채워줘야 한다. 몬스터 카드는 각종 소환이나 여러 경로의 보상으로 얻을 수 있고, 룬은 보통 임무를 통해 신비한 가루를 모아 제작하게 된다. 몬스터 카드를 소환해 업그레이드를 마구 하다 보면 마나석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니 주로 사용할 것 같은 몬스터와 스펠 위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자.

기자의 경험상 등급전을 하다가 약간의 한계(?)를 느낀다면 싱글 모드를 돌아보는 게 도움이 된다. 시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승리의 기쁨도 느낄 수 있고 각종 재화의 수급, 특히 마나석을 쓸쓸하게 모을 수 있다. 점령전은 일회성 플레이기에 다소 아쉽지만, 대신 꾸준히 현상수배범들을 잡고 몬스터나 룬을 강화하며 덱에 변화를 주는 것을 추천한다.

★ 승부에 절대는 없다

승부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했던가. '백년전쟁'은 다양한 몬스터들로 나만의 덱을 꾸리는데 첫 번째 재미가 있고, 전투 시 이슬이슬한 상황에서 한 번의 터치로 승부를 역전하는데 두 번째 재미가 있다. 이제 겨우 다이아 등급에서 '일희일비'하는 겜린이 기자지만 성향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 연습을 거듭할 날을 꿈꿔보며 글을 마친다.

글. 이지호 기자 / jiholee@





컴투스프로야구
2021

MLB PLAYERS
TM/© 2021 MLB
OFFICIALLY LICENSED PRODUCT - MLB PLAYERS, INC.



MLB 9인칭 21

Major League Baseball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 used with permission of Major League Baseball. Visit MLB.com. Officially Licensed Product of MLB Players, Inc. MLBPA trademarks, copyrighted work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owned and/or held by MLBPA and may not be us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MLBPA or MLB Players, Inc. Visit MLBPLAYERS.com, the Players Choice on the web.



야구 시즌을 함께 할 '컴프야2021'의 특별한 마케팅 이야기!

컴프야 BJ 대전 & 이마트 콜라보레이션

'컴투스프로야구2021(이하 '컴프야2021')이 야구 시즌을 맞아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했다. 아프리카TV와 손잡고 '컴프야 2021 BJ 챔피언십'을 이마트와는 이색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전 연령층의 이목을 끌었다.

컴프야2021 X 아프리카TV, '컴프야2021 BJ챔피언십'

'컴프야2021 BJ챔피언십'은 이번 시즌 '컴프야2021'의 핵심 콘텐츠로 도입된 실시간 대전 모드를 활용해 최초로 선보인 오프라인 대회다. 오랜 기간 '컴프야2021'과 함께해 준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진행된 이 대회에서는, 인기 BJ들이 함께 하는 이벤트적 재미와 e스포츠의 묘미까지 함께 선사하며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대회의 전 과정은 아프리카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게임 전문 해설위원 온상민과 정인호가 중계를 맡아 재미 있는 입담과 전문적인 야구 해설로 대회의 긴장감과 관전의 재미를 더했다.

▶ 감스트, 공대생 등 화려한 라인업

대회에는 '감스트', '캐스터안', '공대생', '최강창현', '난닝구', '한민관' 등 아프리카TV 소속 유명 BJ 및 인플루언서로 구성된 6팀이 참여했다. '컴프야 2021'의 실시간 대전 콘텐츠를 활용해 3주간에 걸쳐 풀 리그 방식으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정식 경기 외에도 '고요속의 외침', '야구 배트로 공 튀기기' 등 스페셜 게임을 진행해 보는 맛을 더했으며, 결과들을 합산해 최종 우승팀을 가렸다.



▶ 초대 챔피언은 TEAM '난닝구'가 차지

참가자들의 불꽃 튀는 접전 끝에 'TEAM 난닝구'가 최고 승점을 거두며 초대 챔피언을 차지했다. 특히 'TEAM 난닝구'는 프로 스포츠 선수에 버금가는 열정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정식 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스페셜 게임에서도 발군의 기량을 보이며 가장 먼저 우승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유일한 라이벌 팀으로 거론된 'TEAM 공대생'은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2위를 차지했다.

▶ 우승팀 예측 이벤트 등 특별한 경품까지

이 밖에도, 컴투스는 '컴프야2021' 최초 e스포츠 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유저들에 보답하기 위해 대회 라이브 방송 중 진행되는 '우승팀 예측 이벤트'에 참여만 해도 최고급 게임 아이템들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를 제공했다. 우승팀 적중에 성공한 구단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실제 KBO 선수들의 친필 싸인이 담긴 굿즈 등 특별한 경품을 선물하며 야구 축제를 즐겼다.

'컴프야2021' X 이마트, 파격적인 이색 마케팅

'컴프야2021'과 이마트가 이색적인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진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컴투스는 최근 '컴투스프로야구'와 '버디크리시 대추방울토마토'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을 연달아 선보이며 게임 유저를 비롯해 다양한 소비자층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야구 시즌을 맞아 인기 판매 상품인 치킨과 수박을 활용한 재치 넘치는 콜라보레이션으로 보다 다양한 고객층에게 재미와 혜택을 제공한다.

▶ 이번에는 치킨이랑 수박이다!

이번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은 '승리를 기원 한 닭', '수박 먹으면 흥런칠 수박에!', 등 제품명과 야구를 연계한 언어유희 타이틀로 선보였다. 이 상품들은 오는 6월 23일 까지 전국 이마트 매장의 피코크 및 델리 코너에서 만날 수 있으며, 각각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게임 내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컴프야2021'의 게임 쿠폰이 증정된다. 해당 쿠폰은 게임 내 재화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타'는 물론 '구단선택 플래티넘팩', '2021 Live 선수팩' 등 컴프야 최고 인기 아이템들로 알차게 채워졌다.

▶ '컴프야' 유저들에게 최대 3만원의 이마트 기프트콘 증정까지!

이번 제휴 프로모션을 기념해 5월 26일까지 게임 내 필수 콘텐츠를 플레이 한 모든 유저들에게는 이마트앱에서 사용 가능한 5천 원 할인권을 제공했다. 추첨을 통해 총 750명의 유저에게는 최대 3만 원의 이마트 기프트콘을 증정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이마트앱을 접속하면 '컴프야 이마트 카드꾸러미'를 증정해 쌍방향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마치며 ...

'컴프야 2021'은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통해 협업 파트너와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야구를 사랑하는 다양한 연령층을 두루 섭렵했다. 게임을 하는 유저, 유튜브를 시청하는 구독자,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등 전 매체를 넘나드는 마케팅을 통해 '컴프야'의 진면목을 알린 위트있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

글: 박충렬 기자 / crpark@



5년만의 화려한 귀환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

발레공연은 어렵고 재미없고 지루할 것 같다는 편견이 있었다. 하지만 국립발레단이 160분의 러닝 타임 내내 선보이는 남다른 스케일의 화려한 공연을 관람하고 나니 그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다.

기자가 느낀 발레공연만의 매력을 꼭 사우분들도 느껴 보시기 바라며, <라 바야데르>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아는 만큼 즐기자!

<라 바야데르>는 프랑스어로 '인도의 무희'를 뜻한다. 총 3막으로 구성된 화려한 무대, 120여 명의 무용수, 200여 벌의 의상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블록버스터 대작이다.

이 작품은 아름다운 무희 '니키아'와 그녀를 사랑하지만, 권력을 위해 공주와 약혼하는 전사 '솔로르', 그런 솔로르를 사랑하는 공주 '감자타', 니키아를 사랑하여 신과의 맹세까지 저버리는 제사장 '브라만'이 주인공인데, 복잡한 관계인 이들 사이의 사랑과 배신, 후회 등을 웅장한 음악과 아름다운 발레로 보여준다.

[1막]

니키아는 솔로르와 연인 사이로, 사원에서 비밀리에 만나며 사랑을 키우지만 둘의 관계를 니키아를 짝사랑하고 있던 브라만에게 들켜고 만다. 한편 인도 왕실에서는 공주에게 솔로르의 초상화를 보여주며 결혼하라고 하고, 공주는 초상화를 본 순간 사랑에 빠진다. 약혼식을 거행할 제사장인 브라만은 이 소식에 놀라 왕에게 니키아와 솔로르가 연인관계임을 알리고, 왕은 분노해 니키아를 죽이겠다고 한다.



[2막]

공주와 솔로르의 약혼식 날, 수도승은 왕의 계략인 꽃바구니를 니키아에게 전하고... 니키아는 이를 솔로르가 자신에게 보낸 사랑의 증표로 착각해 기쁨의 춤을 추다 꽃바구니 속 독사에게 물려 온몸에 독이 퍼진다. 제사장은 해독제를 몰래 전해 니키아를 살리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는 솔로르의 모습을 보고 죽음을 택한다.

[3막]

연인을 잃은 솔로르는 절망에 빠져 수도승들에게 슬픔을 잊을 수 있는 의식을 요청하고 그들의 춤에 매혹되어 망령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관전 POINT

공연 내내 다양한 군무와 독무가 펼쳐지는데, 특히 3막에서 펼쳐지는 32명 발레리나 군무는 눈을 땔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인도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무대배경과 장치들도 눈여겨볼 포인트다.

마치며...

사실 언어의 전달 없이 음악과 몸짓만으로 내용을 알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공연을 통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모든 무용수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그 장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관람하며 여실히 느낄 수 있었고, 공연을 위해 준비한 시간과 노력을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기자의 관람 인생 중 첫 발레공연인 국립발레단의 <라 바야데르>. 깊은 감동을 전해주는 이 공연을 사우분들도 경험해 보시길 추천한다.

사진 출처. 국립발레단 홈페이지 및 직접 촬영
글. 정보라미 기자 / brm1015@



'컴투스KOREA 3X3 프리미어리그 2021' 개막

“3대3농구 시즌이 돌아왔다”

컴투스가 후원하는 3대3농구 프로리그 '컴투스 KOREA 3X3프리미어리그 2021'가 지난 5월 1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4개월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컴투스 KOREA 3X3 프리미어리그'는 국제농구연맹(FIBA)에 공식 등록된 국내 최초 3대3농구 프로리그로 지난 2018년 출범 이래 올해로 네 번째 시즌을 맞는다. 컴투스는 국내 유일의 농구 프리미어리그를 주관하는 한국 3대3농구연맹과 손잡고 3년 연속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해 3대3농구의 국내 무대 활성화 및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양 스타필드 특설코트에서 리그 시작을 알린 '컴투스 KOREA 3X3 프리미어리그'는 외부와 동선이 완벽히 차단된 루프탑에 별도 경기장을 마련해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선수단 외 경기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배치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경기가 펼쳐졌다.

이날 개막 라운드에는 지난해 우승팀 한솔레미콘을 필두로 아프리카 프리क्स, 데상트 범퍼스, 박카스, 한울건설, 스코어센터 등 총 6개 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시즌은 KBL 무대에서 활약했던 전직 프로선수들이 3대3무대에 대거 이름을 올리며 눈길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시즌까지 팀 내 주축 멤버로 활약했던 에이시급 선수들이 라이벌팀으로 이적해 친정팀을 상대하는 장면까지 연출되며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경기의 향방 역시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반전이 거듭되며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이변이 속출했다. 먼저, 디펜딩 챔피언 한솔레미콘은 이승준, 이동준, 김동우 등 주축 멤버들이 국가대표 차출로 불참한 가운데, 새롭게 보강된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개막 2경기를 모두 가져가며 가장 먼저 선두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시즌 하위권을 기록한 한울건설 역시 국가대표 출신 슈터 방성윤의 신들린 2점슛 퍼레이드와 새롭게 팀 내 합류한 KBL 출신 가드 성광민의 노련한 경기 운영에 힘입어 2연승을 따내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하고 팀을 새롭게 개편하며 우승후보로 꼽혔던 아프리카 프리क्स는 상대 팀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며 1승 1패를 기록했다.

'컴투스KOREA 3X3 프리미어리그 2021'은 이날 개막 라운드를 시작으로 오는 7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격주로 정규리그를 진행하며, 8월 14일 플레이오프 경기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선발하게 된다. 리그 기간 동안 진행되는 모든 경기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네이버TV 및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도 경기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글. 송준석 기자 / junsukms@



THE NEW!
21세기에 다시 태어난, CRT 브라운관의 게임들

한때, 목직한 CRT 모니터에 붙은 RGB 단자를 후후 붙여 꽂아야 게임을 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오래 게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했다. 번역은 고사하고 게임 잡지에 달려오는 대사 번역집을 한 손에 들고 읽어가며 플레이하던 외산 RPG도, 해를 때 전원을 넣어도 해 질 때까지 끝판왕을 보지 못하던 게임도 이제는 과거의 유산이 되었다. 최근 그 시절 게임들이 부활하고 있다. 추억을 담보로 킥스타터(Kick Starter)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작품들을 훑아봤다.

R-Type Final 2

▶ 고전 슈팅 게임의 재림 (메타크리틱 76점)

게임의 역사는 슈팅 게임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페이스 인베이터'로부터 시작해 '갤러그', '1945'로 이어지는 슈팅 게임이야말로 게임의 대중화를 앞장선 기수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슈팅 게임은 지금 와서는 한물가다 못해, FPS/TPS로 대표되는 3D 슈팅 게임에 밀려 자신의 이름조차 잃을 기세다. 그런 슈팅 게임판에 옛 왕자가 돌아왔다.

알타입 시리즈는 첫 작품('R-TYPE', 1987, 아케이드)부터 횡스크롤 슈팅의 완성형이라고도 불린 시리즈다. 세로 방향 슈팅 게임들은 넓은 화면에서 압도적으로 몰려오는 적을 상대하고, 보스가 내뿜는 "탄막"을 피해 움직이고, 폭탄으로 탄을 제거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많다. 이 장르를 정립한 '구극 타이거(트윈 코브라, 1987)'부터 21세기 슈팅 게임을 지탱해온 탄막 슈팅 게임 '동방 프로젝트'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하지만 횡스크롤 슈팅계에서 알타입 시리즈의 위치는 다르다. 알타입 시리즈는 최소한의 탄으로 효율 높게 플레이를 격파하는 게임이다. 화면 가득 몰려오는 적이 아니라, 상상도 못 한 장소에서 특 나오는 썸으로 플레이어를 거꾸러트리는 이 게임은 마니아화하면서도 한번 손에 잡으면 놓지 못하는 중독성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1세기 초반 게임 산업의 재편에서 개발사 아이렘은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고, 고전 횡스크롤 명가 알타입 시리즈는 2003년 'R-Type Final'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근근이 스프린프 게임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알타입 시리즈는, 구 아이렘의 개발자들이 그란젤라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며 18년 만에 부활의 촉포를 쏘아 올렸다. 2021년 4월 29일 정식 발매된 'R-Type Final 2'는, 개발력의 한계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도 전성기 알타입 시리즈의 구성을 상당히 잘 재현한 완성도 높은 신작이다. 스테이지 클리어와 개발을 통해 총 57대의 기체를 즐길 수 있으며, 추후 업데이트와 패치를 통해 전작까지 등장한 모두 99+@개의 기체를 지원하기로 확약한 상태다. 단 극단적으로 높은 난도와 모르면 죽으라는 타입의 퍼즐형 스테이지 때문에 호불호가 크게 갈린다. 자신이 슈팅 게임에 자신이 있다면 도전해보자.



Bloodstained: Curse of the Moon 2

▶ 명실상부한 악마성 전설, 그 3번째 작품 (메타크리틱 82점)



이 게임은 악마성 시리즈의 정신적 후속작인 Bloodstained IP의 최신작이다. 오랜 시간 동안 악마성 시리즈를 제작한 개발자 이가라시 코지(IGA)가 주도한 'Bloodstained: Ritual of the Night'(본지 2020년 11월호 소개)의 킥스타터 개발 과정에서 추가 모금 특전으로 장난처럼 제시되었던 전작 Bloodstained: Curse of the Moon이, 캐슬베니아 3(악마성 전설)의 게임성을 완전하게 계승하고 높은 평가를 얻자, 그 후 속작으로 개발되었다.

게임 자체가 첫 작품부터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악마성 시리즈에 기반을 두고 있어, 매우 완성도가 높다. 악마성 전설로부터 이어진 동료 시스템도 더욱 진화해, 최대 7명이나 되는 다양한 동료로 바뀌며 플레이할 수 있으며, 2P 협력 플레이도 지원하고 있다.

이 작품이 가지는 제일 큰 특징은, 그래픽도 그 시절 그래픽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때는 보통 그래픽이 제일 먼저 바뀌기 마련인데, 이러한 과거 그래픽을 철저히 유지하는 발상은 매니아한 유저들이 더 열광하는 원인이 되었다.

본작의 단점이라면 너무 레트로한 그래픽을 추구한 결과 알아보기 어려운 화면 구성과 전작보다 더욱 강화된 보스전의 난이도다. 가히 소울

류 게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메트로바니아 장르의 뉴트로를 경험하고 싶은 마니아들에게는 강력 추천. 이러한 장르에 자신이 없다면 먼저 'Bloodstained: Ritual of the Night'를 플레이해보자.

몬스터 보이와 저주받은 왕국

▶ 밝고 가벼운, 하지만 절대 간단하지 않은 (메타크리틱 86점)



한국인이자라면 한번은 플레이해 봤을 게임 리스트를 꼽자면, 2D 장르로는 '메이플스토리'와 '던전앤파이터'가 나올 것이다. '메이플스토리'는 본래 플랫폼 장르와 액션 RPG를 합쳐 온라인 게임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다. '메이플스토리'에 익숙하다면 이 게임은 쉽게 적응할 수 있을지도. 플랫폼 액션 RPG는 이 시리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몬스터 보이와 저주받은 왕국'은 원더보이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상당히 특이하게도, 이 작품은 팬메이드 킥스타터로 시작되어 정규 시리즈로 편입되어 재개발된 작품이다. 원더보이 시리즈는 나올 때마다 장르가 달라지기로 팬들에게 악명이 높은 옛 시리즈였는데, 4번째 게임 '원더보이와 몬스터 랜드'에 와서야 장르를 플랫폼 액션 RPG로 확립했다.

본작은 원더보이로는 일곱 번째 작품이며, 전작 몬스터월드 4로부터 24년 만에 부활한 작품이 된다.

주인공 몬스터 보이는 마법에 걸려 여러 동물로 변신하게 되며, 다양한 마법과 검, 방패를 가지

고 모든 사건의 원흉을 잡으러 가게 되는 소년이다. 산테 시리즈의 영향을 받아 캐주얼한 2D 그래픽으로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디자인을 채택했고, 밝은 분위기의 스토리와 높은 시너지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컨트롤보다는 유저의 센스와 조합 능력을 주로 보는 퍼즐, 레벨링을 통한 억지 돌파도 가능한 구간 등은 누구나 쉽게 입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단점이라면, 일부 비직관적인 퍼즐이나 대사를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풀 수 없는 후반부 요소, 그리고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제공되지 않는 세이브 포인트를 들 수 있겠다. '할로우 나이트'나 오리 시리즈를 즐겁게 플레이한 유저라면 조금 답답할 수 있는 요소다.

과거로부터의 역습: 온고지신이 필요할 때

어떤 이는 이러한 붐을 게임 업계의 장기적인 침체의 근거로 보기도 한다. 독창적인 신규 게임이 개발되지 않고 과거의 게임만이 재소비되는 퇴행적인 개발 환경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마이트 넘버 나인'의 실패 이후 고전 IP의 재해석과 부활은 마구잡이가 아니라 완성도와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흥행한 게임은 언제나 흥행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추억 속에서 잠들어 있던 게임이 부활한 신작들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게임을 비교할 수 있는, 훌륭한 시금석이 되리라 믿는다.



컴투스, 웹툰 사업 본격 진출한다!

콘텐츠 제작사 '정글스튜디오' 설립



컴투스가 콘텐츠 제작사 '정글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웹툰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컴투스와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제작사 케나즈(대표 이우재)가 공동 설립한 합작투자회사(JV) 정글스튜디오는 웹툰-웹소설 등 스토리 콘텐츠를 전문으로 제작 기업으로, 컴투스가 전체 자본의 56%, 케나즈가 나머지 44%를 보유한다.

앞으로 추진할 웹툰 등 콘텐츠 제작은 관련 분야의 탄탄한 노하우를 가진 케나즈의 이우재 대표가 정글스튜디오의 대표직을 맡아 직접 진두지휘하며, 케나즈의 최정상급 작가 20여명이 핵심 인력으로 투입돼 경쟁력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정글스튜디오는 컴투스의 인기 게임 타이틀과 케나즈의 제작 노하우 등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양사의 우수한 경쟁력을 토대로 스토리텔링 콘텐츠 중심의 IP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먼저 게임을 넘어 여러 미디어 영역을 넘나드는 컴투스의 글로벌 IP '서머너즈 워'를 기반으

로, 기존에 선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장르의 다수 웹툰을 2022년 1분기 연재를 목표로 제작한다. 이와 함께 웹툰 기반 웹소설로도 제작 범위를 넓히며, 그간 컴투스가 발전시켜온 '서머너즈 워' IP의 깊이 있는 세계관을 자체 제작 콘텐츠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컴투스의 여러 게임 타이틀을 웹툰으로 제작하고, 정글스튜디오만의 탄탄한 기획력과 독창적 아이디어로 오리지널 웹툰 제작도 추진하는 등 자체 IP 확보에도 나선다. 더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컴투스의 개발력 및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글스튜디오의 콘텐츠를 글로벌 게임화하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분야로의 IP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컴투스와 손잡은 케나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작가 200여명을 확보하고 있는 웹툰 전문 제작사로 지난 2018년 설립돼 80만여명이 구독하는 히트작 '불사무적'과 '망할 가문을 살려보겠습니다', '항장', '로그인 무림' 등 무협판타지, 로맨스, 액션, 드라마 등 다채로운 장르의 수백 여

편 작품을 제작해오고 있다. 웹드라마 '전지적 짝사랑 시점', TV드라마 'W', '나인' 등 유명 드라마 IP 기반 웹툰을 통해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성과를 거두며 'K웹툰' 열풍을 이끌고 있다. 한편 컴투스는 이번 정글스튜디오의 설립을 통한 웹툰 사업 진출로 문화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다.

이미 '워킹데드'로 유명한 미국의 글로벌 콘텐츠 기업 스카이바운드엔터테인먼트와 '서머너즈 워' 세계관을 확장하고, 코믹스 및 단편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했다. 뿐만 아니라 VFX-CG 전문 기업 위지웍스튜디오, 스토리 콘텐츠 기업 엠스토리허브, MZ세대 콘텐츠 기획사 클레버이엔엠,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방송 미디어 기업 미디어캔 등 역량 있는 기업의 인수 및 투자를 통해, 주력인 게임 사업을 근간으로 웹소설·웹툰부터 영화·드라마·방송 및 애니메이션·공연·전시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문화 콘텐츠 분야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글: 정혜영 기자 / jhyyo@

★ 컴투스와 정글스튜디오를 공동 설립한 웹툰제작사 케나즈의 대표 작품들



2021 여름, 등골이 오싹해지는 온라인 PvP 공포게임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VS 홈 스위트 홈 : 서바이브

추운 날씨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다 보니 어느덧 6월이다. 옷을 푹푹 싸매고 오달오달 떨던 게 엇그제 같은데, 바깥 기온이 슬금 슬금 올라가더니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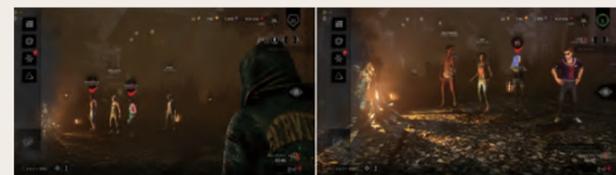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시원한 바닷가, 여름 휴가, 수박, 냉면 등. 우리는 무더운 여름날을 이기기 위해 피서를 가기도 하고, 등골이 오싹한 공포 영화를 보기도 한다. 그래, 여름은 '공포'의 계절이기도 하다. 미디어들은 공포를 소재로 우리에게 짜릿함과 오싹함을 선사한다. 귀신, 살인마, 괴물들을 보다 보면 모골이 송연해지고 어느새 더위는 솟아오른 털갈이 너머로 날아가 버린다.

공포 게임 또한 빠지면 섭한데, 특히 게임은 대부분 유저가 직접 플레이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포의 강도가 다른 매체들 보다 더 크기 마련. 자신이 공포와 호러를 즐기는 유저라면, 그리고 그 오싹함을 즐기는 담이 큰 유저라면, 올 여름은 공포 게임으로 피서를 해보는 건 어떨까?



★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

- * 출시일 : 2016. 6. 14
- * 플랫폼 : PC, PS4, XBO
- * 개발 : Behaviour interactive



살인마 vs 생존자, 1:4 비대칭 대전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이하 데바데)’의 가장 큰 특징은 멀티플레이 PvP라는 것이다. 많은 대전 게임에서 흔히 보이는 '같은 조건, 같은 인원의 대전'이 아닌 1 대 다수로 이뤄져 있다. 단 한 명의 유저가 살인마 역할을 하며 4명의 생존자 유저와 매칭된다. 생존자는 살인마를 피해 문을 열 수 있는 발전기를 돌려가며 도망쳐야 하고, 살인마는 생존자가 모두 도망치기 전에 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데바데’에서는 왜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NTT라는 악의 근원이 현실로 강림하기 위해 그의 손아귀에서 살인마들과 생존자들의 끝나지 않는, 영원히 죽고 죽이는 반복적인 삶이라는 큰 맥락으로 시작된다. 생각보다 배경 설정이 심오하고, 살인마와 생존자들의 비하인드스토리도 디테일하고 탄탄하다. 스토리 트레일러 영상도 있으니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보고 시작하면 좀 더 몰입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공포와 고어 장르의 슬래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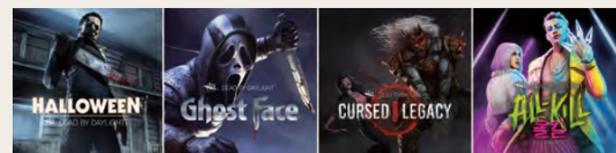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둡다. 살인마가 근처에 다가갈수록 생존자는 공포스러운 사운드에 노출된다. 부상을 입은 생존자는 피를 흘리며 신음을 내 어그로를 끌고, 살인마의 공격으로 쓰러지면 잡혀 갈고리에 걸리게 된다. 게임 상황에 따라 깜짝 깜짝 놀라키는 요소가 있으며, 생존자 캐릭터는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 살인마가 즉결 처형 기술을 쓸 경우 생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살해당할 수도 있는데, 묘사가 잔혹하여 연령 제한이 있다.



심리전이 필요한 추격전

살인마는 뛰는 속도가 생존자보다 빠르다. 대신 생존자는 구조물을 활용하여 도망갈 수 있다. 맵 곳곳에 세워진 판자를 내릴 수 있고, 창틀이나 내려진 판자 등, 구조물을 빠르게 뛰어넘을 수 있다. 반대로 살인마는 창틀을 넘는 속도가 느리고 내려진 판자를 부숴야 지나갈 수 있다. 따라서 살인마에게 쫓기는 생존자는 살아남으려면 구조물과 소모품인 판자를 활용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

살인마는 한 생존자만 집요하게 쫓으면 시간이 소모되고 다른 생존자를 잡을 수 없게 된다. 대신 생존자는 구조물과 판자를 최대한 아껴야 하므로, 서로 심리전을 이용하여 플레이한다.



글로벌 감각이 엿보이는 콘셉트

살인마들과 생존자들의 설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낯설지 않은 캐릭터들이 보인다.

각각 국적이 다양하며, 설정이 상당히 디테일하다. 유명한 공포 게임이나 영화의 등장인물도 등장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잡았다.

최근에는 한국인 캐릭터인 K-POP 아이돌, 프로듀서(학지운, 이윤진) 콘셉트로 새롭게 등장하여 이슈가 되었다.



★ 홈 스위트 홈 : 서바이브 ★

- * 출시일 : 2021. 3. 25
- * 플랫폼 : PC
- * 개발 : YGGDRAZIL GROUP



태국 게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VR에 대응하는 태국산 공포게임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이 발매됐다. 태국의 전통문화를 배경으로 개발된 공포, 퍼즐게임으로 출시하자마자 게이머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아마 이름은 생소해도 화면을 보면 “아~ 이 게임~” 하는 유저들도 꽤 있을 것이다.

올해 3월 25일에 발매된 '홈 스위트 홈: 서바이브(이하 'HSH 서바이브')'는 멀티플레이 PvP 3인칭 생존 공포 게임이다. 마찬가지로 생존자와 귀신 간의 생존 대 살인 게임인 한데, 앞서 말한 '데바데'와는 조금 다르다.



아시아 정서가 담긴 생존자 vs 귀신 비대칭 대전

'HSH 서바이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비대칭 서바이벌 장르 신작이란 점과 아시아의 정서가 담겼다는 것. 개발사 이그드라실그룹(YGGDRAZIL GROUP)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태국의 문화를 게임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등장인물이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체감할 수 있다.

'HSH 서바이브'의 규칙은 '데바데'와 비슷하다. 생존자는 악령을 피해 탈출하거나, 성불시키면 승리한다. 반대로 악령은 4명의 생존자의 탈출을 방해하며, 모든 생존자를 처리하면 승리한다. 승리 조건과 규칙은 장르의 특색이기도 한 만큼 기본적인 규칙을 충실하게 따른다. 각각 국적이 다양하며, 설정이 상당히 디테일하다. 유명한 공포 게임이나 영화의 등장인물도 등장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잡았다.



공포, 호러 + 액션 게임

세부적인 진행은 느낌이 꽤 다르다. 생존자의 아이템 비중이 무척 크다. 무조건 상자를 파밍해야 하고, 어그로 끌 때를 대비해 적절한 위치에 아

이템을 배치해야 하는 방식이다. 생존자의 목표는 벽에 매달려 있는 시체를 성불시키는 것이다. 이 시체가 귀신 힘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생존율을 높일 수도 있다. 생존자는 캐비닛에 숨거나 개구멍으로 이동할 때 무적 판정을 받는다. 캐비닛에 들어가고 나올 때 소지한 무기로 공격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악령을 묶어 둘 수 있다.

높지대 맵에서도 장롱을 오가는 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구석 지형을 이용한 공격도 숙련자가 자주 쓰는 일종의 스킬이다. 꼬리 물기 전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악령을 따돌릴 수 있으니 보다 풍부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낯설지 않은 게임 콘셉트

'HSH 서바이브'에서는 대적할 수 없는 재앙에 가까운 서양의 괴물 혹은 귀신보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흔히 표현되는 아시아의 정서에 가깝다. 불교를

국교로 삼은 태국이 배경이라 그런지 의식을 행할 때는 법문을 외우는 말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는 것도 한국 게이머 입장에서 느끼는 남다르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악령은 현대적인 복장을 가지고 있고, 무기도 커터 칼을 쓴다. 죄수는 옷에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가 적혀있다. 동유럽 신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물귀신 님프도 등장한다. 스팀에서 글로벌 서비스되는 만큼, 서구권 유저에게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공포감을 주는 장치는 문화적 이해가 필요한 이야기, 표현 보다 시각과 청각 등에 원초적인 자극에 치중됐다. 호러보다는 액션에 가까운 게임이라 공포물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단, 그로테스크한 표현이 있는 만큼 마음의 준비는 필요하다.



비대칭 서바이벌을 즐기는 유저라면 추천

'홈 스위트 홈 : 서바이브'는 비대칭 서바이벌 장르를 즐기는 유저를 위한 게임이다. 여기에 각종 도구를 활용

하는 전략으로 플레이 패턴이 다양하다. 심리싸움과 지형지물 활용법을 잘 알고 있는 게이머라면 악령에 대처하는 방법이 늘어난 만큼 보다 재미있는 플레이가 가능하다.

불안정한 매칭 시스템 탓에 불합리한 상황도 자주 발생하니, 이를 극복할 실력이 요구된다. 다행인 점은 이 정도 기본적인 뼈대가 갖춰진 게임을 커피 한두 간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대칭 서바이벌 장르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홈 스위트 홈 : 서바이브'를 한번 맛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벨트스크롤’ 대탐험

그 시절, 문방구 앞을 지배했던 게임을 찾아서 2탄!

지난 호에서는 벨트스크롤 게임은 무엇인지, 대표적인 벨트스크롤 게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오늘은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한 번씩 보았던 것 같은 벨트스크롤 게임 두 가지를 준비했다.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 ▶ 닌자? 야구? 전대물?

첫 번째 소개할 게임은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이다. 이 게임은 야구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황금 야구 동상을 찾아 미국 전역을 돌아다닌다는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데, 유저는 야구 동상에 부착된 야구모자, 배트, 공, 신발, 글러브를 찾아야 하는 것이 게임 클리어의 조건이다.

타이틀 이름에 걸맞게 유저는 고유의 기술을 가진 빨강/파랑/초록/노랑 4개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각종 야구용품으로 등장하는 적과 싸우게 된다.



★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 캐릭터 선택 창

캐릭터 마다 보유한 기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유저의 선택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달라졌는데, 이 때문에 문방구 앞에서는 높은 스코어와 낮은 난도를 모두 챙길 수 있던 그린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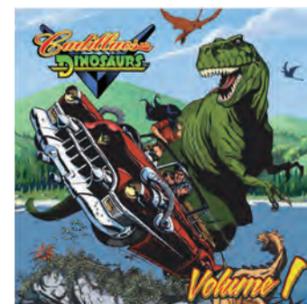
★ 난도 하락의 주범, 그린의 이나즈마 킥 ★ 호쾌한 스윙! 이 공은 홈런일까

게임이 야구를 주제로 하는 만큼 게임 곳곳에는 야구를 생각하게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적을 잡은 상태에서 공격+회피 버튼을 누르는 경우 배트를 크게 휘두르며 공격하는데, ‘야구공 형태의 적’이라면 멀리 날아가며 단번에 처치할 수 있다.

또한 7개의 도시로 된 스테이지는 모두 야구와 연관되어 있다. 1탄의 시애틀 매리너스부터 시작해 6탄의 시카고 컵스와 시카고 화이트 삭스, 그리고 최종 보스가 있는 7탄에는 뉴욕 양키스가 있다.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은 어렵지 않은 난이도와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래픽으로 만들어져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게임이다. 특히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옛날의 추억을 되새기며 한 번쯤 플레이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캐딜락&다이너소어’ ▶ 총과 공룡 그리고 캐딜락이 있는 게임



★ 만화 원작 캐딜락 & 다이너소어의 포스터

먼 미래인 2513년, 인간과 공룡이 서로 공존하는 시대. 갑자기 공룡들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어느 날 유난히 캐딜락을 사랑하는 자동차 정비공 잭과 탐험을 즐기는 외교관 한나가 우연히 만나 모든 일의 원흉인 블랙마켓에 맞서 싸우게 된다.

그러나 잭과 한나는 블랙마켓이 그저 밀렵을 진행하던 단체가 아니라 매드 사이언티스트 닥터 시몬 페센텐의 하부조직이며, 이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자신이 만들어낸 공룡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살포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목적은 모든 인간을 자신에게 복종하는 공룡으로 만들어 세계정복을 꾀하려는 것!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면 단순한 공룡과 악당이었던 적들이 인간과 공룡의 중간단계의 모습이거나, 실패한 실험체의 모습 등으로 등장하여 기괴한 모습을 자아낸다.

여기까지 꽤 심도 있는 스토리를 영화처럼 설명해 보았다. 오늘 두 번째 소개할 게임은 ‘캐딜락&다이너소어’다. 동명의 만화 원작을 기반으로 캡콤이 제작한 벨트스크롤 게임이다.



★ 무스타파. 한국에선 이강남, 새마을 운동, 농부 아저씨로 불렸다!

캐릭터는 잭, 한나, 무스타파, 매스 4명으로 이 중 1명을 선택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캐릭터의 커맨드는 모두 동일하나 스테트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다. 우연하게도 오늘 소개하는 두 가지 게임 모두 스토리 주인공이 비주류 캐릭터인 게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무스타파를 선호하는 플레이어가 많았으며, 파워형 캐릭터인 매스가 숨겨진, 성능 좋은 캐릭터로 알려졌다.

재미있는 것은 게임을 진행할수록 다양한 도구들이 드랍되며 유저는 이를 줍고 던지며 활용하게 되는데, 특히 여러 가지 총기가 등장해 게임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고로 누가 총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클리어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스테이지를 지나다 보면 공룡들이 등장하고, 붉은색으로 공격성을 지니게 된 공룡은 야구과 적군을 모두 가리지 않고 눈앞에 있는 대상을 공격하는 특징이 있다.



★ 아.. 깨우면.. 안된다고..!

다른 게임에 비해 캐릭터 음성이 강하게 인식되는 게임인데, 특히나 캐릭터들의 기합 소리가 우렁차 기억하는 유저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후리 후리야!’ 하는 기합 소리는 그 자체로 게임을 설명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을 정도.

추억의 타임머신을 마치며 ...

이번 호에서는 정말로 누구나 문방구 앞에서 한 번쯤은 보거나 했을 벨트스크롤 게임 2탄을 소개해 보았다. 게임들을 소개하기 위해 글을 쓰다 보니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로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독자 여러분도 생각난 김에 자신만의 추억의 게임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





게임빌·컴투스 와 함께하는 '고!고! 챌린지'

'플라스틱 사용 로그아웃 하GO! 지구 치유 능력 득템 하GO!'

#고고챌린지 #탈플라스틱_캠페인 #플라스틱로그아웃 #지구치유능력득템 #친환경대나무칫솔

게임빌·컴투스가 탈플라스틱 실천 운동을 약속하는 '고!고!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한다.

'고!고! 챌린지'는 환경부가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생활 속 탈플라스틱 캠페인이다.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짐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약속하는 활동으로, 게임빌·컴투스는 '플라스틱 사용 로그아웃 하GO! 지구 치유 능력 득템 하GO!'라는 캠페인 슬로건을 정하고, 탈플라스틱을 위한 다짐을 공식 SNS를 통해 전했다.

더불어 탈플라스틱을 실천하기 위한 친환경 대나무 칫솔 및 치약 세트를 직접 제작하고, 그중 300개를 안산시 지역 아동 및 청소년 그룹홈 30여 곳에 기부해 탈플라스틱 실천 동참의 뜻을 지역 사회와 나눴다.

또한 그룹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사 시 머그컵 및 텀블러 등을 지급하고 생활 속 일회용 제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탈플라스틱 환경 보호 취지의 사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출처: 각 제작사 공식 홈페이지



마음이 나달거리는 퇴근 후 충전 비극

명대사와 함께하는 드라마 <나빌레라> & <중쇄를 찍자!>

올해로 마흔이 되었다. '불혹'이라는 말에 걸맞게 올해 목표는 "의연하게 살자"로 세웠으나, 서른아홉 해를 일회일비하며 살아왔는데 순식간에 달라질 리가. 어제는 일 때문에, 었그제는 딸 때문에, 또 언젠가는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고 의연함은 사라진다. 이렇게 마음이 나달거리는 날에는 퇴근 후 그 어떤 것보다 선하고 좋은 것들의 충전이 필요하다.

오늘은 일회일비의 대가가 엄선한 충전 비극으로 잃어버린 마음의 균형을 찾아보자.

헌신하면 헌신짝 될까? 나빌레라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나빌레라>는 일흔의 나이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 할아버지와 스물셋 꿈 앞에서 방황하는 발레리노 채록의 성장 드라마다. 황혼의 도전이라는 독특한 주제로 큰 화제가 되었지만 나의 충전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헌신적인 믿음에 대한 보답'

잘하고는 싶은데 자신이 없고, 외로운데 기댈 곳 없는 스물셋 채록에게 덕출 할아버지는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을 퍼붓는다. 엄치척은 일상,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할아버지의 물개 박수 덕에 길었던 채록의 사춘기가 끝난다.



“채록인 그런 아이가 아니야. 돈 준다고 당구대에서 춤추라는 말 들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괴롭히지 마 채록이. 채록인 크게 날 아오를 사람이야.”

(연습으로 망가진 채록의 발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고생하며 열심히 하는데 잘 될 거야. 그냥 널 믿고 해봐.”

“다음은 있다. 채록아.”

그리고 조금씩 할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시작한다. 할아버지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요즘 청년 감성(?)으로 쉽지 않을 공중 목욕탕도 같이 가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걱정 중 어떤 것이 우선일지 고민한다.

밖에서 새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철철 넘친다



무한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할아버지의 가족들. 가부장적이던 옛 시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늘 아내를 ‘누구 엄마’가 아닌 ‘이름’으로 부른다. 정년 퇴임식 아내에게 당신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라고, 40년에 당신 지분이 반이라며 고마움을 표한다.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가르치기보다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괜찮다고 기다려 준다. 하물며 갑질 상사에게 항의하고 취업 기회를 날린 손녀에게는 “네 잘못 아니야. 알지? 잘 견뎌고, 잘 소리쳤어. 어제 아주 좋았어”라며 위로를 넘어 칭찬이러니.

초반부에는 세상 모든 가족처럼 크고 작은 갈등이 나오지만, 후반부에 할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가족들은 너무 흔해서, 그냥 일상 같아서 잊고 있었던 할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을 깨닫고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대중교통에서 보는 것은 피해야 한다

비록 이렇게 건전(?) 한 드라마지만, 따뜻한 각본/연출과 배우들의 명연기 덕에 대중교통에서 보기는 위험하다. 잔잔한 노래와 함께 베테랑 연기자들의 얼굴이 클로즈업되기 시작하면 “아, 나는 이제 곧 울 수도 있겠구나”라며 눈물 질끔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할아버지의 다큐멘터리를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장면은 대표적인 눈물 파밍(!) 구간으로, 시원하게 한 번 울고 싶은 기회를 찾는 분들에게 강추한다.

나에게도 덕출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이라고 기자 역시도 종종 말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또 다시 보답받는 경험은 오랜 시간 잊히지 않는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에는 나에게도 덕출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받고 싶은 그 사랑을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본 후 내게 가장 큰 수확은 딸에게 사자후를 한 번도 안 한 것이라는. (비록 2주 밖에 안 되었지만...)

이렇게 재미처럼 일해서 뭐하나~ 할 땐 중쇄를 찍자

요즘 운 좋은 사람들이 참 많다. 예전에는 복권 하나뿐이었다면 요즘은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등 한 번의 기막힌 선택으로 큰돈을 벌어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설 새 없이 들린다. 능력자들도 많다. 부캐로 본 캐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회사일에만 몰두하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운도, 부캐도 없는 나에게 짜증이 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찮게 느껴지고 결국 ‘아, 일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 (아주 가끔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자주 보는 드라마가 바로 <중쇄를 찍자>다.

일본판 '미생'으로 알려진

이 드라마는 주간 코믹지 '바이브스' 편집부에 취직한 신입 사원의 이야기다. 하지만 신입 시절이 가물가물한 내겐 신입사원의 성장 스토리보다는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인상적이었다. 작가와 편집자는 물론이고 영업사원, 표지 디자이너, 서점 직원들 모두 자기 일을 진심으로 좋아한다. 특히 극 중 디자이너의 대사는 일을 대충 하고 싶을 때 (이것도 가끔입니다) 중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한다.



“세상을 잘 보라. 세상은 놀 것으로 가득하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이 진열돼 있다. 그중에서 한 권을 선택받는 마법은 없다. 그러니까 생각해라. 무엇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일을 해라. 항상 자신에게 물어봐라. 내 일이라고 가슴 펴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는지.”

알고 보니 '기승전 근로 장려 드라마'

운이란 정말 타고난 것인가? 타고난 운이 없다면 노력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 때는 출판사 사장님의 에피소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우연히 만난 노인과의 대화, 한 권의 책,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사장님의 인생관은 서서히 바뀌게 된다.



“많은 운을 모을 수 있다면
남 일에서 이기고 싶다”

“좋은 걸 알려 주지. 운은 모을 수 있네. 이 세상은 더하고 빼서 0이 될 수도 있네. 갖고 태어나는 거에는 차이가 있어도 때는 모두 동등하게 나뉘네. 좋은 일을 하면 운은 쌓이고 나쁜 일을 하면 바로 운은 줄어들지. 운을 자기편으로 만들면 행복이 몇십 배는 많아질 걸세. 문제는 어디에서 이기고 싶냐는 거지.”

“난 도박을 그만뒀다. 술과 담배도 끊었다. 취미는 산책과 청소. 집은 세 들어 살면서 차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 사치 부리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했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날 무렵, 우연히 구매한 무명작가의 해외 미스터리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연이은 중판 출래, 중판 출래 만약 운을 모을 수 있다면 난 일에서 이기고 싶다. 모든 운을 책임 잘 팔리는데 쏟아붓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난 계속 운을 모으고 있다.”

결국 착하게 살면 자기 일에서 성공할 수도 있다는 약간 힘 빠지는 결론이지만 그래도 내가 어쩔 수도 없는 운을 탓하며 지금을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운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 고민하다 보면 내가 정말로 잘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선명하게 보인다. 그런데 이런 고민 끝에 알게 된 내가 정말로 잘하고 싶은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면?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나의 꿈을 찾아 떠나야 하는 건가? 성급하게 결정을 하지 말고, 일단 '유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잘생긴) 영업사원 고이즈미의 에피소드를 먼저 본 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에피소드까지 보고 나면 '기승전 근로 장려 드라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만, 한 편으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생겼을 것이다.

마치며...

물론 심란한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은 지금 차선의 방법으로 위의 드라마를 정주행 해보자. 다양한 OTT에서 첫 달 무료 정책을 포함해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TIP. 혹시 회미해지는 기억력 때문에 정기 결제의 희생자가 될까 걱정된다면 '왓차'같은 OTT플랫폼에서 1개월 이용권도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이미지 출처: 각 제작사 공식 홈페이지 및 영상 캡처
글: 심정연 기자 / liashim@



먹고 마시고 걷는, 수원의 명소

행궁동

수원에서 꼭 들려야 하는 장소가 있다면 어딜까. 많은 곳이 있겠지만 기자는 단연코 행궁동을 뽑겠다. 문화유산부터 카페 거리, 공방 거리, 전통 시장까지 즐길 거리가 넘치는 곳이 바로 행궁동이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카페로 특히 유명한 행궁동에서 커피를 한잔하며 산책하는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간을 여행하는 카페

화성 행궁이 있는 곳답게 행궁동에는 옛날 감성의 카페가 상당히 많다. 특히 한옥 형태의 카페가 정말 많은데, 기자는 그중에서 '경안당'과 '행궁 살롱'을 추천한다. '경안당'은 실내외 모두 전통 한옥 느낌을 고수하고 있으며, 심지어 음료를 사발에 주고 디저트는 전통 다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 한옥이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곳이니 나이와 관계없이 추천한다.

'행궁 살롱'은 한옥보다는 시골집에 가까워, 90년대 스타일의 인테리어와 더불어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한다. 또한, 이쯤처럼 경성 시대 의복을 대여하거나 경성 시대 배경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 새로운 체험을 원하는 분에게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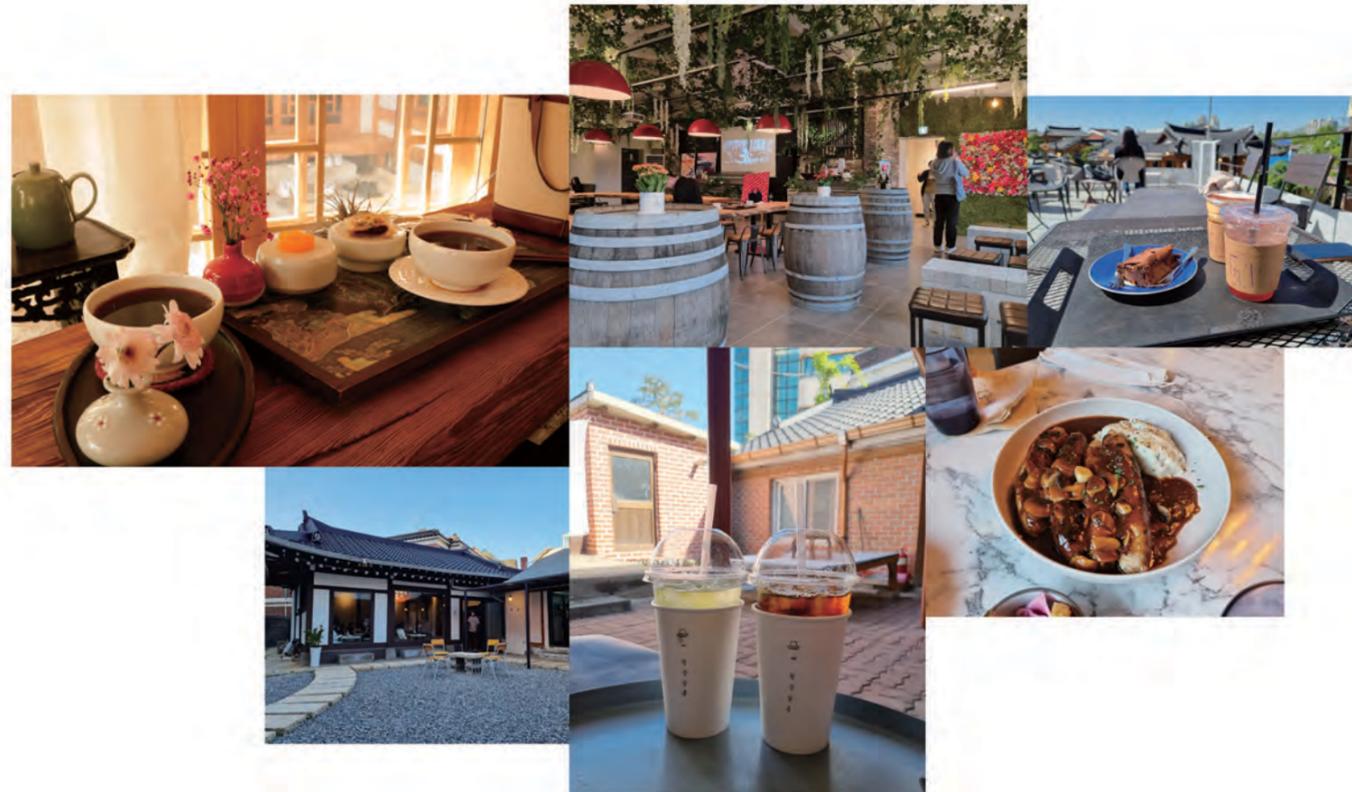
인스타그램에 딱 좋은 카페

전통 한옥 느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모던한 카페도 많다. 먼저 소개할 곳은 '우리들의 20세기'로 달달한 커피와 디저트를 건물 옥상에서 즐길 수 있어 유명한 카페다. 메뉴는 3종류의 아인슈페너와 적절한 당도와 식감을 가진 브라우니를 추천하며, 꼭 옥상에서 바깥 경치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두 번째는 최근에 새로 문을 연 '카페 우인'이다. 3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이곳은 모던한 실내 인테리어와 탁 트인 창문으로 보이는 성곽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오히려 실내에서 즐기는 것이 좋다. 추천 메뉴는 '그린 패션후르츠 에이드'.

꼭 가봐야 할 산책 코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가장 먼저 추천하는 산책 코스는 아무래도 '행궁 성곽길'이다. 돌담이나 건축물이 잘 보존된 성곽길을 따라 걸으면, 탁 트인 시야로 행궁동이 한눈에 들어와 속이 뽕 뚫리는 느낌이 든다. 또한 봄에는 꽃이 만개한 방화수류정, 겨울에는 흔들리는 갈대밭 등 계절마다 바뀌는 성곽길 풍경도 산책의 묘미 중 하나이다.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 개장이 진행되기에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밤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만약 데이트 코스를 원한다면 카페 거리가 즐비한 골목길을 걷는 것도 추천한다. 대부분의 카페가 주택가를 개조해 지어졌기 때문에 골목 풍경에 잘 녹아 있으면서도 외형은 촌스러운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골목 사이사이에 있는 소품 샵이나 창룡문에 위치한 열기구도 좋은 데이트 코스다.

행궁동은 아이들과 함께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가족 단위로 방문해 오래 걷는 게 힘들다면 화성 어차를 타고 편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고, 행궁 내부에서 다양한 전통 체험을 즐길 수도 있다. 만들기를 좋아하면 행궁 옆에 위치한 공방 거리에서 다양한 공예나 솜사탕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등의 체험도 추천한다.

하루의 마무리, 저녁 식사

마지막으로 온종일 걸어 다니며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테이스팅 뮤지엄'에 들리는 것을 추천한다. 한옥의 외형과 달리 메뉴는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뱅어&메쉬, 라구라자나 등 흔치 않은 메뉴가 많아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한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맛이기에 호불호가 크게 갈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자가 추천하는 Best Place]

카페 : 행카페, 정지영커피로스터즈, 수원의 아침, 행궁81.2, 행궁맨션, 한섬
 식당 : 마담마담, 운멜로, 미식가의 주방, 크양 분식, 버거 스테이지, 에어홀 피자, 진미통닭
 그 외 : 포토이즘, 브로콜리 숲, 통닭 거리, 팔달문, 남문 시장, 화성행궁 뒤 산책로
 * 식당은 예약이 필수!



홈파밍 수경재배키트 'ECOGROW'

이젠 집안에서 나만의 미니 텃밭을 만들어 보자!
탐나는 가정용 식물 재배기 에코그로우(ECOGROW)

✦ 현대인들을 위한 텃밭

일반적으로 텃밭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선 흙이나 주변 환경, 물 주기 등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가정이나 사무실 같이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에는 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햇빛이 잘 들지 않으면 성장이 더디고, 차지하는 공간도 생각보다 상당하다. 게다가 물 주기를 잊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기엔 현대인의 삶은 너무 바쁘고 고되다. 그렇게 관리에 소홀해지다 보면 어느새 식물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말라 죽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RIP).

그런 이유로 에코그로우는 미래의 '텃밭 로망'을 실현하기 전에 꾀손인지 아닌지 확인 해볼 겸 부담 없이 미리 체험해보기 알맞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거기에 디자인도 심플하고 부피도 그리 크지 않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아이템이다.

✦ 수경재배키트란?

수경재배란 말 그대로 흙을 사용하지 않고 물과 수용성 영양분으로 만든 배양액으로 식물을 키우는 방법이다.

✦ 흙 없이, 햇빛 없이도 가능

에코그로우는 지저분하게 흙을 묻힐 필요도 없고 거실이나 방, 책상 위, 집안 어디에서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식물 재배에 최적화된 시스템의 키트다. 실내에 두고 키우는 방식이기에 식물의 성장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1년 내내 식물을 키울 수 있다. 바질이나 양상추, 번식력이 강한 허브 등 요리에 사용할 재료를 다양하게 재배하기에도 편리해 여러모로 유용하다. 물론 방을 더럽히거나 해충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이 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어두운 실내에서도 잘 자란다는 점이다. 일부러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쪽으로 옮겨주지 않아도 키트에 달린 생장 LED의 불빛만으로도 식물이 상당히 잘 자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 정말 간편한 재배방식

에코그로우는 시작부터 수확까지 큰 힘이 들지 않는다. 씨앗을 발아솥에 넣고 그 위에 발아캡을 덮은 후, 1~2주 정도 지나면 싹이 나오기 시작한다. LED 조명의 시간 조절도 가능해서 식물의 성장 속도를 재배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조정해 주면 된다. 물탱크에는 작은 부표가 있어 물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한번 물을 넣으면 1~2주 정도는 거뜬하다. 원할 경우에는 인공 토양인 그로단을 추가 구매해서 사용해 봐도 좋겠다.



✦ 아이와 함께한 슬직한 재배 후기

재택근무를 하다보니 에코그로우는 자꾸만 바라보게 되었다. 자꾸 들여다본다고 식물이 빨리 자라는 건 아니지만, 어쩐지 조금이라도 자랐을 것 같은 마음에 하루에 수십 번씩 보며 잘 자라길 빌게 되는 시선을 멈출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어느새 식물이 싹을 틔우고 열심히 쑥쑥 자라나고 있는 모습에 재미를 넘어 경외심마저 들기도 했다. 나날이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안정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더불어 아이가 있다면 씨앗을 심고 싹이 자라나는 모습을 매일매일 관찰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새싹이 커졌다며 신기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더 다양한 식물을 키워 봐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다.



Ecogrow는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해 준비했어요

라이어 기능

빛을 비추는 시간을 조절해 식물이 알아서 잘 큼니다

- 대기 모드** (깜빡깜빡)
- 긴 조명 모드** (13시간 후, 11시간 대기 모드)
- 짧은 조명 모드** (8시간 후, 16시간 대기 모드)
- ECO 모드** (약한 LED 조명 유지)

원하는 식물 성장 속도에 맞게 타이머를 선택하여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대기모드 후에는 다시 조명이 켜지고 계속 계속 반복됩니다.

LED 성장등

실내에서도 성장에 필요한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ED 조명
 - ✓ 광합성 촉진 효과
 - ✓ 식물의 성장, 발아, 개화를 도와줌
 - ✓ 병, 해충으로부터 보호

LED light로 일년 내내 식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탱크

물탱크로 편리하게 수분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부표가 있어 물의 양을 항상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공급하시면 1~2주는 물을 안주셔도 됩니다.

물탱크도 탈부착이라 안쪽까지 세척도 편리합니다.

✦ 마치며...

평소 집에 텃밭을 만들고 싶거나 조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상추 정도는 집에서 키워서 먹고 싶다는 분들께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인 가구부터 자녀가 있는 가정까지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제품들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 미세먼지나 마스크의 답답함이 싫다면 이번 여름에는 집안에서 자유롭게 바질, 오레가노, 타임, 토마토, 로메인 등 다양한 식물들을 친환경, 유기농으로 키우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 봐도 좋겠다.



PERFECT INNING 2021



MLB PLAYERS

GAMEVIL

GONG GAMES

MAJOR LEAGUE BASEBALL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 USED WITH PERMISSION OF MAJOR LEAGUE BASEBALL. VISIT MLB.COM. OFFICIALLY LICENSED PRODUCT OF MLB PLAYERS, INC. MLBPA TRADEMARKS, COPYRIGHTED WORK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OWNED AND/OR HELD BY MLBPA AND MAY NOT BE US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MLBPA OR MLB PLAYERS, INC. VISIT MLBPLAYERS.COM, THE PLAYERS CHOICE ON THE WEB. © 2017-2021 GAMEVIL COM2US USA, INC. GAMEVIL AND THE GAMEVIL LOGO ARE TRADEMARKS OF GAMEVIL, INC. GONGGAMES AND GONGGAMES LOGO ARE TRADEMARKS OF GONGGAMES CORP. ALL RIGHTS RESERVED.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LUMNI ASSOCIATION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 US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LUMNI ASSOCIATION AND MAJOR LEAGUE ALUMNI MARKETING, INC.

게임빌·컴투스인들의
달콤한 인생
#오월의가족 #추억부자 #효도(안마)하는고양이

지난 달콤한 인생 공모전 주제는 '가정의달'이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만큼 훈훈한 시간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가족과 함께 한 화목한 식사 자리와 여행 사진은 언제 봐도 즐겁고 훈훈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가족, 반려동물과의 색다른 이야기까지!

부모님과, 아이들과, 그리고 반려동물들과 함께 한 게임빌·컴투스인들의 화목한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강지훈 (서머오리진 스튜디오)

부모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이벤트로 여행 가거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사진 찍고 있는데 이렇게 모아보니 뿌듯하네요!! 모두들 행복한 가정의 달 되세요!



김경희 (RED 스튜디오)

어머니와 함께 강아지와 '땡땡런 개라톤'에 참가하였습니다~ 날은 더웠지만 9.26km를 두 시간 정도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도 하고 뜻깊은 하루였어요!



황선희 (NANUK 스튜디오)

어린이날에 아이들과 함께 태안에 캠핑장에서 3박 4일 캠핑하면서 갯벌에서 맛조개도 잡고 조개도 줍고 밤에는 해지는 노을도 함께 구경하며 불꽃놀이를 하며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좋은 추억이 된 거 같아서 좋았어요~!



고승모 (폴리싱팀)

어버이날이라고 저희 엄마 안마(해주는 척) 하는 고양이 사진 보내봅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 엄마를 가장 좋아하는 고양이 씨~ 나랑 누나도 좀 좋아해 주라~



신현애 (센트럴아트실)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에 부모님과 함께 포항 구룡포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 촬영지에 다녀왔습니다. 재미있게 본 드라마라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구경 후에는 시원한 물회 한 그릇 딱딱~!!



6월의 달콤한 인생 공모전 주제는 '방구석 패셔니스타'입니다. 이제 완전한 여름이네요. 다들 옷 정리하셨죠? 코로나로 외출은 쉽지 않지만 계절 따라 기분 따라 새옷 마련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입고 나갈 곳이 많지 않으셨죠? (눈물) 억눌려있던 패션 욕구, 사보에 뽐뽐해 보시면 어떨까요? 본인, 가족, 반려동물은 물론 게임내 캐릭터의 패션도 가능합니다!
(당선자를 위한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QR CODE



기간: 2021년 6월 15일까지
응모방법: 사진 및 설명을 이름/소속/연락처와 함께 QR코드 또는 메일(GCNEWS@gamevilcom2us.com)로 보내주세요.



복면검왕

'복면검왕'은 매일 새로운 '갯겜'을 선정하여 감동과 여운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베일에 가려진 게임을 단계별로 추측해서 정답을 맞춰 보세요.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01 2020년 8월 출시한 게임으로, 4일 만에 스팀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인플루언서가 이 게임을 하면서 급격하게 유명세를 타기도 하였습니다.

02 총 60인이 멀티로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멀티 플레이 게임입니다. 라운드마다 랜덤으로 선정된 미니게임을 통해 유저들이 순차적으로 탈락하며, 최후의 일인이 승자가 되는 베틀로얄 장르죠.

03 단순한 조작법과 낮은 난도로, 누구나 쉽게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방식이 정말 간단하고 쉬워서 게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04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래픽과 캐릭터가 매력 포인트! 형형색색의 부드럽고 귀여운 비주얼과 상큼한 캐릭터 사운드, 그리고 노래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힐링이 됩니다.

05 개성 넘치는 커스터마이징으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꾸밀 수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로 매일 바뀌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매하여 캐릭터를 더욱 특별하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기간 : 2021년 6월 15일까지

메일 주소 : GCNEWS@gamewilcom2us.com(이름, 연락처를 함께 적어 주세요.)

5월호 정답 : Path of Exile (패스 오브 엑자일) / 5월호 당첨자 : 이*혁(7275), 김*근(8763), 김*민(9523)

글. 강승현 기자 / hellogreen@

추억의 '테일즈위버' 편

과거 꽤 유명했던 '룬의 아이들'이라는 소설이 있다. 원작에 다분히 빠져버렸기에, 명곡 OST와 아기자기한 도트로 재현된 '테일즈위버'를 접한 순간, 가슴이 웅장해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다년간의 자취 생활로 PC게임과 멀어진 지 오래. 지금은 대세라 할 수 없지만(대세인 적이 있었던가...?), 기자의 학창시절을 함께 했던 '테일즈위버'의 용어를 되짚어 보았다.

▶ 단전: 그탑, 시오크, 데린
그림자탑, 시오칸하임, 데린세히르의 줄임말이다. 용도별로 다양한 사냥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각각 고렙 구간 전 주력 사냥터와 연마 및 각성 재료 수급 등으로 많이 거론되는 곳이다.

▶ 몬스터: 포젤
'테일즈위버'의 슬라임, '젤리빠'가 상한 버전인 '포이즌 젤리빠'를 말한다. 썩은 녀석이지만 이 녀석들이 남긴 젤리가 더 많은 곳에서 쓰인다.

▶ 캐릭터: 백법, 타티
마법사 캐릭터 '티치엘'을 각각 힐러와 타격 속성으로 육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르비크에서 백법 파티원을 구하는 유저를 흔히 볼 수 있다.

▶ 시스템: 재분
당시 '테일즈위버'에는 특정 NPC를 찾아가 캐릭터 육성 스타일에 따라 스킬 리셋, 재분배를 하는 시스템 특색이 있었다. '시엔'이라는 스킬 계열과 레벨 총합을 생각하며 진행해야 하기에 꽤 머리를 아프게 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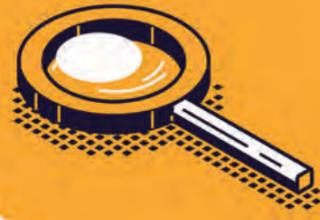
▶ 아이템: 인크
인크립트 스크롤. 아이템 합성 횟수를 줄여준다. 플라마켓에서 자주 볼 수 있다.

▶ 콘텐츠: 일어오보
일반 어려움 요일 보스. 요일마다 다르게 등장하는 정령의 신전 보스를 의미하며 난이도도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캐릭터 각성 재료를 얻을 수 있다.

▶ 지역: 네나플
원작에서 등장인물이 전부 모이는 장소인 마법학교가 있다. 에피소드3 업데이트와 함께 추가되었다. 하지만 극악의 난도를 뽐낸 친밀도 콘텐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게임 내 상품이 유저들을 분노케 하였다.

글. 송소현 기자 / hyony0420@

게임빌·컴투스피플 엿보기



MY BIG DATA

게임빌·컴투스의 사우들은 어떤 코너를 재미있게 보고 있을까요?
지난 3년동안 사보는 내 옆자리의 동료 혹은 내가 직접 참여해 만들어 온 우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즐거웠던 코너와 읽고 싶은 코너, 그리고 쓰고 싶은 코너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

스마트 폰
QR코드 찰칵!

둘!

Q&A

1분
설문조사!

셋!

문화상품권
당첨!

응모 주제
게임빌·컴투스 및 자회사 모든 임직원

응모 형식
(큐알코드)

응모 대상자
게임빌·컴투스의 모든 임직원

진행 일정
모집: 6월 15일까지
발표: 7월 사보

당첨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5명의 사우에게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낚시의 신



주 3인턴

주 3일 근무, 4일 휴무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2	23	24	25	26

2021 게임빌 컴투스 SUMMER 인턴십 지니어스 3기

2021년 5.17 (월)
~ 5.31 (월) 14시 마감

GENIUS
3기



그림. 이은주 기자 / hlej23@

🎁 5월호 당첨자 발표

안정현, 양한글님 축하드립니다~!



모집기간

2021년 5.17 (월) ~ 5.31 (월) 14시 마감

인턴십 기간

2021.7.5 (월) ~ 2021.8.27 (금) 총 8주

(주 3일(화/수/목) 근무 예정)

지원방법

온라인지원 (<http://gamevilcom2us-recruit.com>)

공통지원자격

기졸업자 혹은 2021년 8월 /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모집부문

게임사업 / 마케팅 / 게임기획 / 게임아트
프로그래밍(클라이언트, 서버) / 밸런스QA / AI개발 / 경영 / 인사

전형절차

온라인 지원 > 서류 전형 > 필기테스트 & 면접 > GENIUS 대상자 선발

- 프로그래밍 / AI개발 직무에 한하여 온라인 필기테스트 진행 예정
- 게임기획 / 게임아트 / 밸런스QA / 인사 직무에 한하여 면접 진행 시 과제 부여 예정

전형일정

- 서류 결과 발표 : 6.9(수) 18시 예정
- 필기테스트 : 6.12(토) 예정, 상세 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 필기테스트 결과 발표 : 6.16(수) 18시 예정
- 면접 : 6.14(월) ~ 6.23(수), 상세 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 인턴 대상자 발표 : 6.29(화) 18시 예정

문의

카카오톡 ID : @컴투스채용 @게임빌채용 (친구 찾기를 통해 ID등록 후 1:1문의가능)



안정현 (게임빌 인프라관리팀)



양한글 (컴투스 Fishing 스튜디오)



당신의 무한한 상상력을 기대합니다.
말풍선에 위트있는 멘트를 넣어
사진 촬영 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WEWIT 삽화는 사우분들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멋진 솜씨를 뽐낼 금손 사우들께서는 언제든지
편집부에 문의 주세요~!
(이 코너는 임직원만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 2021년 6월 15일 까지
메일 : gcnews@gamevilcom2us.com
회사, 소속, 이름, 연락처를 함께 적어주세요

Congrats!

Welcome Welcome

글로벌 No. 1 모바일게임사를 위해 함께 하게 되신
여러분 모두 입사를 축하합니다!



게임빌

게임제작본부 콕태삼 과장, 게임제작본부 서민석 사우, 게임제작본부 김도연 대리,
게임제작본부 김희경 사우, 게임사업부문 정석우 대리, 게임제작본부 김재민 사우,
게임제작본부 강동국 차장, 게임제작본부 노승한 과장, 게임사업부문 문혜민 사우

컴투스

Fishing스튜디오 양한글 책임, 개발운영센터 배준수 선임, 개발운영센터 신수원 차석,
개발운영센터 김인동 수석, 개발운영센터 방용범 수석, 개발운영센터 박일구 차석,
개발운영센터 현경훈 사우, 개발운영센터 성종현 차석, 경영전략부문 공우진 차장,
마케팅&컨텐츠센터 윤치오 대리, 마케팅&컨텐츠센터 이동민 과장, 사업전략총괄 최철규 대리,
사업전략총괄 고희찬 차장, 사업전략총괄 유우교 사우, 제작1본부 현유민 선임,
제작1본부 신재영 책임, 제작1본부 이형은 사우, 제작3본부 조동진 차석,
제작4본부 염혜린 사우, 제작4본부 김용찬 사우, 제작5본부 오재형 책임



게임빌컴투스플랫폼

플랫폼총괄 송보미 사우

Gamevil Com2us Europe

Annabell Führes

Gamevil Com2us Taiwan

Mura Liu



TWO IN MEDIA 169호 2021년 6월호



게임빌 레트로 감성 자극 RPG '로엠', 글로벌 출시

게임빌이 신작 액션 RPG '로엠(글로벌 서비스명: Slime hunter: wild impact)'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양대 마켓을 통해 글로벌 출시했다. '로엠'은 아기자기한 도트 그래픽으로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특징이다. 친숙한 2D 횡스크롤 방식 RPG로 쉽고 간편하게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도 매력 포인트다. 특히, 화려한 스킬 연출이 돋보이며 다른 게임들에 비해 훨씬 높은 전투력 수치를 부여해 폭풍 성장의 재미를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다.



컴투스 '버디크러시', 전 세계 소외 아동을 위한 후원금 전달

컴투스가 판타지 골프게임 '버디크러시'와 연계한 사회공헌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버디크러시'의 '두근두근 설레는 하트 이벤트'는 약 3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유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1천만개의 하트 모으기 공동 미션을 달성해 1천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본 이벤트를 통해 마련된 후원금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진행하는 아동 교육 지원 사업 중 하나인 'Safe Back to School(SB2S)'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코로나 19로 인해 장기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전 세계 소외 아동들이 안전하게 수업에 복귀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게임빌 '빛의 계승자', 길드간 치열한 경쟁의 재미 더하는 '길드레이드' 오픈

'빛의 계승자'가 '길드 던전'을 '길드레이드'로 개편해 새롭게 오픈한다. 길드레이드는 불/물/숲 속성 캐릭터(서번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디버프 효과에 면역이 되어 속성간 상성관계가 중요해져 더욱 전략적인 전투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보스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공격형 캐릭터를 사용하면 전투 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즌은 1일 1시즌으로 단축되어 속도감을 더했으며, 길드레이드에서 획득한 재화로 '길드 상점'에서 '서번트 파편', '장비의 재료', '변환석' 등 유용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게임빌·컴투스, 유연한 근무 환경 지원하는 주3일 인턴십 지니어스 3기 모집!

게임빌과 컴투스가 '게임빌·컴투스 SUMMER 인턴십 지니어스' 3기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게임사업/마케팅 ▲게임기획 ▲게임아트 ▲프로그래밍(클라이언트/서버) ▲밸런스QA ▲시개발 ▲경영(IR) ▲인사 등 8개 부문에서 진행되며,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테스트와 면접 견학을 실시해 6월 말 최종 인턴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오는 7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 8주간 실무 중심의 인턴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인턴십 수료자에게는 하반기 신입 공채 모집 시 서류 전형 가산점을 부여한다. 특히 게임빌·컴투스는 인턴십 참가자들이 직무 경험과 자기 계발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주 3일 근무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교육 및 실무 경험 외에도 참가자들이 자기계발을 위한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EPILOGUE

게임빌, 컴투스, 게임빌컴투스플랫폼 임직원들이 기자로 참여했습니다.



정민지 기자 8-11p Cover Story **The boy! from a happy life**, 컴투스 영상제작팀 '장용훈' 사우

컴투스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면접 시간까지 대기하며 사보를 보면서 긴장을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사하게 된다면 '나도 사보 제작에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어서 참 기쁘네요~! 여건상 표지 모델을 직접 인터뷰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글로 소통할 수 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정훈 기자 12-13p Game Focus **도트 그래픽에 힐스크롤이면 킴칭아재! 레트로 점성 2D RPG '로얄'**

고등학교 때까지는 글쓰는 게 마냥 좋았는데, 나이를 먹고는 좀처럼 글 쓸 기회가 없었다. 사보기자 활동도 기쁨으로 다가왔다. 하물며 게임의 중요한 새소식을 알리게 되어 너무 영광이었고 최근에 생각없이 게임을 즐기던 모습과 다르게 다각도로 게임을 볼 수 있어 더 좋았다. 앞으로도 취미로 게임에 대한 글을 써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태국 기자 14-15p Game Focus **'서머너즈 워: 천공의 하레나' 7주년, 유쾌함을 맞이하라!**

최근 출시한 '서머너즈워: 백년전쟁'도 7주년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기자단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충렬 기자 20-21p Marketing story **아구 시즌을 함께 할 '컴프야2021'의 특별한 마케팅 이야기**

매달 받아보는 사보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평소 글을 쓸 일이 없었는데, 많이 부족했지만 기자단에서 활동하면서 글도 작성해보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정보라미 기자 22p Special **5년만의 화려한 귀환, 국립발레단 <라비아데르>**

사보에 글을 쓸 때 마다 어떻게 해야 기사를 읽는 분들께 내용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매번 고민이 됩니다. 이번 발레공연 캡처도 사우분들 및 구독자님들께 저의 감동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길어진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문화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육경완 기자 24-25p Special **The New! 21세기에 다시 태어난, CRT 브라운관의 게임들**

사보에 참가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양소영 기자 27-29p 게임vs게임 **2021 여름, 등골이 오싹해지는 온라인 PvP 공포게임**

평소에 해보고 싶지만 모험같은 게임이라 구매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게임vs게임 기자를 할 기회를 얻어 사보팀에서 금액 상관없이 게임 화끈하게 선물해주시고, 게임도 실컷해 보고 즐거웠습니다! 이런 해자같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다른 사우분들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석 기자 30-31p 고전탐독 **'벨트스크롤' 대탐험, 그 시절 문방구 앞을 지배했던 게임을 찾아서 2탄!**

문방구 앞에서 게임을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심정연 기자 33-35p 퇴근후에 **마음이 나달거리는 퇴근 후 충전 비급, 드라마 <나빌레라> & <중생물 픽자>**

메일이랑 보고서를 제외하고 이렇게 긴 글은 오랜만에 써보는 거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완료하고 나니 성취감이 있네요. 어려운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 사보팀 담당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태윤 기자 36-37p 맞세상 **먹고 마시고 걷는 수원외역소 '행궁동'**

취재 자체는 업무로 시작했지만, 막상 행궁동을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힐링을 하고 왔다고 느꼈습니다. 바쁘고 조급한 와중에 잠깐이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경식 기자 38-39p Monthly Item **홀파밍 주경재메리트 'ECOGROW'**

평소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이와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들고 사보 기자라는 새로운 경험도 쌓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승현 기자 44p 복면쟁왕

사보 기자단 활동은 처음이었지만,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송소현 기자 45p 게임백과사전 **추억의 '테일즈위버' 편**

면접장에서, 누가 봐도 '회사 것'이었던 사보는 굉장히 먼 내용으로만 느껴졌는데... 어느새 회사에 들어와서 적응하고 있고, 생각보다 빨리(?) 콘텐츠를 작업할 수 있게 되어 놀랍고 웅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기자 49p WE WIT

사보 참여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재미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지만 어느 분이 재미있게 채워주실지도 내심 기대됩니다.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Pulitzer Prize



게임빌컴투스뉴스는 임직원이 기자단으로 참여하여 만들어 집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한 달 간 열심히 취재하고 즐겁게 노력해주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가장 애써주시고 의미 있는 기사를 작성해 주신 기자 두 분을 선정해 풀리처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2021년 5월호 풀리처상 수상자들을 공개합니다.



엄나윤 기자

부족함이 많은 글로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프랑스 자수를 주제로 기사를 썼지만 사실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원데이 클래스 1회 참여 후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 해본 것이 전부입니다. 딱 그만큼의 실력뿐이어서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려고도 될지 걱정도 되었지만 취미라는 게 꼭 잘하지 않아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이 많았던 시기에 제 마음에 평안을 주었던 취미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풀리처상까지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혹시 시작을 망설이는 취미 활동이 있으시다면 부담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벌써 절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점점 좋아지는 만큼 코로나19 상황도 하루빨리 나아져서 소개해드린 집콕 취미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아 기자

안녕하세요. 입사한 지 이제 5개월에 접어든 '컴린이' 신입 기자 이수아입니다.

첫 사보 작성에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컴린이인 제가 지난해부터 팀에서 열심히 준비한 인사제도 및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 적잖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많은 소스와 피드백을 주신 팀원분들께 이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특히, 인사시스템의 준비로 가장 바쁜 시기이지만 인터뷰에 응해주시며 도움을 주신 서정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우분들을 위한 인사 및 복리후생 제도를 소개하는 기사를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신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기사로 다시 만나요!



게임빌컴투스뉴스 'GC 상식 퀴즈'

게임빌컴투스뉴스는 잘 읽어보고 계신가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몇 가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퀴즈를 풀고 QR코드를 통해 정답을 보내주세요.
 당첨자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https://forms.gle/HzQe3ut2yjFtHo8K8>
 기간: 2021년 6월 15일까지



- 5월 11일, 게임빌과 함께 글로벌 출시한 '로엠'만의 매력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① 리얼한 3D 그래픽 ② 자유도 높은 아이템 제작 시스템 ③ 플레이가 편함
- 7주년을 맞이 한 장기 흥행 게임 '서머너즈 워'의 신규 업데이트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전투 훈련장 ② 신규 2차 각성 몬스터 ③ 카운터 시스템
- '컴프야2021'이 야구 시즌을 맞아 이마트와 함께 진행한 콜라베이션이 아닌 것은?
 ① '수박 먹으면 흥런칠 수박에' 출시 ② '이길 만두 하지' 출시 ③ '승리를 기원한 닭' 출시
- 게임빌-컴투스 2021 써머 인터넷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 3일 근무 ② 서류는 방문 접수해야 함 ③ 총 8주간 근무 예정

정답자 공개!

5월호 정답 : ① LA 다자스 ② 김건배 ③ 결계진 ④ 삼담포유
 5월호 당첨자 : 최*혁(9606), 정*진(0704), 마*효(3097)

2021 SEASON START!

GAMEVIL



MOBILE BASEBALL GAME SINCE 2002

게임빌

프로야구

2021 SEASON

Your Choice, Your Story. Storypick



Glen

잠시만요, 볼에 꽃잎이 붙었어요.

그에게 말기자

VS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SUMMONERS WAR



7th
ANNIVERSARY